

삼성전자, 미니스커트폰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31일 울트라에디션 II의 슬라이드형 모델인 "울트라에디션 10.9"의 국내용 제품인 "애니콜 미니스커트" 폰 (SCH-C220/SPH-C2200/SPH-C225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애니콜 미니스커트"폰은 10.9mm 두께의 슬림 슬라이드 스타일에 외부의 나사, 홈 부분을 모두 없애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제품 전면부에 터치패드를 탑재해 휴대폰을 닫았을 때 버튼이 보이는 부분을 최소화했으며, 액정 부분에 거울 느낌을 주는 미러형 코팅 처리를 하는 등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렸다.

별도의 키트를 부착하지 않고도 교통 안내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전용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사진크기 조정, 화질조정, 화이트밸런스조정, 측광방식설정 등 디지털카메라 고유의 기능도 손쉽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블루투스 기능을 내장해 손을 대지 않고도 MP3 뮤직 및 VOD/MOD 감상, 통화 등이 가능하며, 33만 단어 시사영역사 사전, MP3 멀티 태스킹 등 각종 첨단 기능을 두루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초록 바나나' 폰 출시

오감만족 폰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나나' 폰이 싱그럽고 발랄한 느낌의 '초록'을 입었다.

LG전자는 지난 5월 31일 '바나나' 폰의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성있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초록 바나나(제품명: LG-SV280)' 폰을 출시했다.



'초록 바나나' 폰은 애플그린 색상에 은은한 핑을 적용해 다가오는 여름, 시원함을 선사할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녹색 계열 색상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컬러 테라피에 자주 이용되는 색상으로, '초록 바나나폰'의 주 타겟 층인 1318세대의 심리 안정과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록 바나나' 폰은 얼굴 라인을 고려해 인체공학적(Ergonomic) 유선형 슬라이드를 적용했고, 뒷면은 라운드형 디자인으로 손으로 칠 때의 그림감을 강조해 휴대폰 통화 시 안정성을 극대화하였다.

또,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소리나 진동뿐만 아니라 양 옆면의 램프가 반짝이는 '반딧불 기능'을 내장했고, 숫자 키패드 부분에는 은은한 리벤더향을 추가해 고객들의 휴대폰 사용 시 오감(五感) 만족을 제공했다.

필립스, 스팀시스템 장착 다리미 출시

필립스전자는 지난 5월 22일 강한 압력으로 다리질 시간을 줄여주는 스팀시스템 다리미 GC6360을 출시했다.



스팀 시스템 다리미는 흔히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탱크가 달린 다리미와 비슷하며, 유럽 선진국에선 이미 대중화된 형태다.

다리미 본체의 물탱크를 이용한 기존 스팀 다리미와는 달리 별도의 대용량 물탱크에서 생성된 고압력의 스팀을 이용한다.

GC6360은 기존 스팀다리미보다 2배 이상 풍부한 스팀량과 별도의 대형 물탱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압력 스팀이 특징으로, 주름 제거 능력이 뛰어나 다리질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또 1L의 대용량 물탱크가 별도로 부착되어 한 번 물을 채우면 많은 양의 옷감을 한번에 다리질할 수 있다.

T1, 차세대 디지털 파워 시스템 컨트롤러 출시

T1은 에너지 효율성을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퓨전 디지털 파워' 컨트롤러 'UCD9240'을 출시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UCD9240은 전압범위가 다른 DC/DC 컨버터 등 출력 채널을 최대 4개까지 관리할 수 있다. 1개 채널만 관리하던 기존



제품은 2개의 위상차만 관리가 가능했다.

이 제품은 위상차를 8개까지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하가 낮을 때(경부하)도 일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최대 30%까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UCD9240은 업그레이드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통해,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 제어, 응답, 소프트 스타트, 마진 설정, 루프 반응, 팬 제어 등 여러 기능을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컨트롤러는 출력 채널 제어를 하면서 최대 2mV의 스위칭 주파수를 지원하는 퓨전 디지털 전원 주변기기를 통합한다.

또 제어, 구성, 전원 공급장치 관리를 위해 최대 100개의 인터페이스 명령을 지원하며, 동작 시 40mA정도의 전류만을 필요로 한다.

모토로라, 레이저 후속모델 '레이저 스퀘어드' 출시

모토로라가 '레이저'의 성공 신화를 잇기 위해 야심차게 개발한 글로벌 전략폰 '레이저 스퀘어드(RAZR2)'를 5월 17일 발표, 내달 한국시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레이저 스퀘어드'는 '레이저'의 폴더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외부 LCD 화면을 주요 기능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휴대폰의 폴더가 닫힌 상태에서는 외부 화면이 액세서리 시계 정도의 역할에 그쳤지만 이 제품은 터치키를 이용해 동영상과 MP3음악 감상, 블루투스, 카메라 촬영 등이 가능하다.



두께는 11.9mm,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프레임을 적용했다. 가격은 아직 미정이며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을 통해 2세대(G) CDMA 2000 1x 방식으로 출시된다.

LG-노텔, 차세대 단말기 2종 공개

LG-노텔이 마이크로소프트 통합커뮤니케이션(UC)용 IP전화기와 USB폰 등 차세대 단말기 2종을 공개했다.



지난 3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UC 데이 2007' 행

사에서 공개된 'UCT-1000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IP폰으로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의 현재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즌스(Presence) 기능을 갖췄다. 또 USB폰 'UCT-100DSK'는 별도 드라이버 없이 USB로 연결해 사용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전화기다.

LG-노텔은 이 제품을 필드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에 전세계 시장에 출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레보, 게이트맨 마린·루나 출시



아이레보는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안전마크(KPS) 인증을 획득한 '게이트맨 마린'과 '게이트맨 루나' 등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전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안티쇼크시스템(Anti Shock System)을 적용, 3만볼트 이상의 전기충격기 전류에도 오작동이 없다.

특히 화재안전 개폐 시스템과 열감지 센서를 내장, 내부온도가 55도 이상시 경보음이 울리는 동시에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열리도록 했다.

남성적 느낌의 색깔을 채용한 마린과 섬세한 여성성을 강조한 루나 모두 금속 느낌이 나지 않는 표면 소재를 채용, 마감이 고급스럽고 버튼부를 터치패드로 처리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침입감지, 가스제어 등의 홈네트워킹 확장도 가능하다.